



예레미야 25-44장의 메시지: 3단계 구성을 중심으로*

김래용(협성대)

1. 서론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서는 크게 2개의 단락(렘 1-25장; 26-52장)으로 구분된다.¹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으며,

* 이 연구는 2022년도 협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2-0003).

1 Ernest W. Nicholson, *Jeremiah 1-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과 *Jeremiah 26-5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William L. Holladay, *Jeremiah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과 *Jeremiah 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William McKane, *Jeremiah I* (Edinburgh: T. & T. Clark, 1986)과 *Jeremiah 2* (Edinburgh: T. & T. Clark, 1996); Walter Brueggemann, *To Pluck Up, To Tear Down: A Commentary on Jeremiah 1-25*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과 *To build, To Plant: A Commentary on Jeremiah 26-5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Peter C. Craigie, Page H. Kelley, and Joel F. Drinkard, Jr., *Jeremiah 1-25* (Dallas: Word Books, 1991)과 Gerald L. Keown, Pamela J. Scalise, and Thomas G. Smothers, *Jeremiah 26-52*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 1998); Georg Fischer, *Jeremiah 1-25* (Freiburg: Herder Verlag, 2005)과 *Jeremiah 26-52* (Freiburg: Herder Verlag, 2005).

두 번째 단락의 구조와 메시지에 대한 분석도 차이를 보인다. 룬드봄(Jack R. Lundbom)은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을 예레미야 24장으로 본다. 예레미야 1장과 24장에 환상이 배치되어 전자가 예레미야 1-23장의 서론 역할을 하듯이 후자가 예레미야 24-52장의 서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레미야 24-45장이 바룩의 작품인데, 특히 예레미야 37-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통을 묘사하는 소위 “via dolorosa” 산문이라고 보았다.² 로페(Alexander Rofé)는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을 예레미야 25장으로 본다. 룬드봄과는 달리 그는 예레미야 1장과 24장에 각각 나타나는 환상이 1-24장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인클루지오 패턴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그는 예레미야 25-36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는데, 그 이유는 이 단락이 ‘여호야김 제4년’으로 시작되고 끝나며, 또한 여호야김(렘 25장; 26장; 35장; 36장)과 시드기야(렘 27장; 28장; 29장; 32장; 34장)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좋은 대칭을 이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단락에 배치된 예레미야 30-33장의 ‘위로의 책’은 후대의 작품이며 현재의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³ 홉스(T. R. Hobbs)는 예레미야 1-24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예레미야 25장이 예레미야 46-51장과 함께 이스라엘 적들의 패배라는 공통된 이데올로기를 묘사한다고 보았다. 그는 예레미야 26-36장의 메시지가 마지막 장에서 절정에 다다른다고 보면서도 이 단락에 포함된 예레미야 30-33장이 후대의 작품이며, 여기에 놓인 이유는 여전히 신비로 남는다고 주장하였다.⁴ 니콜슨(Ernest W. Nicholson)은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을 예레미야 26장으로 보는데, 예레미야 1-25장이 여러 개의 작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다의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았기

2 Jack R. Lundbom, *Jeremiah 1-2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96-97.

3 Alexander Rofé, “The Arrangement of the Book of Jeremiah”,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1 (1989), 392-396.

4 T. R. Hobbs, “Some Remarks on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Book of Jeremiah”,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4 (1972), 267-273.

때문이다. 반면에 그는 예레미야 26-52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6-36장(‘예레미야의 선포와 백성들의 불순종’), 37-45장(‘주전 587년 이전과 이후 선지자의 삶과 사역’), 46-51장(‘열방의 심판’), 52장(‘역사적 부록’).⁵

이처럼 학자들은 예레미야서 후반부의 시작에 대해 다른 의견(렘 24장; 25장; 26장)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공통된 것은 예레미야 25/26-44/45장을 25/26-36장과 37-44/45장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25/26-44/45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취급하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을 지닌 2개의 단락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의 일부는 예레미야 30-33장이 후대의 삽입이며 현재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⁶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3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로 예레미야 25장(특히 1-11절)은 예레미야 1-24장의 결론 역할⁷을 하는 동시에 예레미야 26-44장의 도입 역할을 한다.⁸ 둘째로 예레미야 26-44장은 불순종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의 단락인데, 특별히 3개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26-33장(‘거저 선지자 모티프’), 34-39장(‘심판 모티프’), 40-44장(‘섬김 모티프’)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로 예레미야 25장 1-8절, 9-10절, 11절은 26-44장의 메시지를 위한 도입 역할을 하며(1단계),⁹ 예레미야 26-29장과 34-38장과 40장 1절-43장

5 Ernest W. Nicholson, 윗글(1973), 14-15. 예레미야 26-45장의 자세한 논의를 위해 Martin Kessler, “Jeremiah Characters 26-45 Reconsidered”,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27 (1968), 81-88; Mark Leuchter, *The Polemics of Exile in Jeremiah 26-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참조.

6 Douglas R. Jones, *Jeremi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1992), 370-371 참조.

7 자세한 논의를 위해 김래용, “예레미야 1-25장의 메시지와 고이의 역할”, 『신학사상』 189집 (2020년 여름), 38-40 참조.

8 본 논문은 예레미야 26-44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예레미야 25장 1-11절과 연결하였고, 예레미야 45장을 26-44장에서 분리하였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25장 13절(“이 책”)이 45장(“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1절)과 관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예레미야 26-45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고 26-44장이 예레미야의 고난과 업적의 절정이며, 45장의 고별연설은 이 단락의 결말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유미, “예레미야서와 전기장르: 렘 26-45장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27집 (2010년), 210-214.

9 골딩게이(John Goldingay)도 유사한 주장을 한다. John Goldingay, *The Book of Jeremi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21), 60-64. 예레미야 25장 1-14절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

7절은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메시지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2단계), 예레미야 30-33장과 39장과 43장 8절-44장 30절은 보충 설명한 내용을 마감하는 역할을 한다(3단계). 이런 점에서 불순종의 메시지는 3단계 구성을 통해 전개되며, 불순종 및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통해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과 야웨의 주권이 강조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예레미야 25장 1-11절과 26-44장의 메시지와 3단계 구성

예레미야 25장 1-11절은 예레미야 26-44장의 메시지를 위한 도입 역할을 한다. 예레미야 25장 1-8절의 불순종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예레미야 26-33장에서 거짓 선지자 모티프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예레미야 25장 9-10절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예레미야 34-39장에서 심판 모티프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의 섬김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예레미야 40-44장에서 섬김 모티프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25장 1-11절과 예레미야 26-44장은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예레미야 25장 1-11절과 26-44장을 각각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이들 사이의 관련성 및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레미야 25장 1-8절과 26-33장: 불순종과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25장 1-8절은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 요약하는데(1단계),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보충 설명이 예레미야의 전기와 관련하여 예레미야 26-29장

해 Anneli Aejmelaus, "Jeremiah at the Turning-point of History: The Function of Jere. XXV 1-14 in the Book of Jeremiah", *Vetus Testamentum* 52 (2002), 459-482 참조.

에 언급되고(2단계), 불순종에 관한 논쟁의 과정에서 언급된 회복의 내용이 예레미야 30-33장에 묘사된다(3단계).¹⁰ 이런 점에서 불순종의 메시지는 3단계 구성을 통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 메시지를 위해 거짓 선지자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으며, 불순종의 메시지를 통해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이 강조된다. 한마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순종의 메시지-도입(렘 25:1-8)

예레미야 25장 1-8절은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묘사한다. 특별히 이 단락은 예레미야서 전반부(렘 1-24장)에 언급된 요시아 왕 제13년(주전 627년)부터 여호야김 왕 제4년(주전 605년)까지 23년 동안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음을 요약하는 역할을 한다.¹¹ 그런데 예레미야 26-33장에도 여호야김 제1년 이후에 있었던 불순종과 그에 대한 논쟁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25장 1-8절의 위치와 내용을 볼 때, 이 단락은 예레미야 1-24장과 26-33장의 사이에 배치되어 전자를 마무리 짓는 결론 역할을 하는 동시에 후자를 시작하는 도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레미야 25장 1-8절에서 불순종과 관련된 직접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 | |
|-----|--|
| 3b절 | וַאֲדַבֵּר אֵלֵיכֶם אֲשֶׁכִּים וְדַבֵּר וְלֹא שְׁמַעְתֶּם |
| 4a절 | וְשָׁלַח יְהוָה אֵלֵיכֶם אֶת-כָּל-עֲבָדָיו הַנְּבִיאִים הַשְּׂפֵם וְשָׁלַח וְלֹא שְׁמַעְתֶּם |
| 7a절 | וְלֹא שְׁמַעְתֶּם אֵלַי נְאֻם-יְהוָה |
| 8b절 | לֹא שְׁמַעְתֶּם אֶת-דְּבָרִי |

10 Douglas R. Jones, *윗글*, 370-371.
 11 John Goldingay, *윗글*, 538; Robert P. Carroll, *Jeremi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490.

위의 4개의 구절은 모두 ‘너희가 듣지 않았다’(אָנְשָׁאֵךְ אֵלַי)라는 표현을 통해 백성들의 불순종을 묘사한다. 4번의 반복을 통해 백성들이 야웨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표현의 앞과 뒤에 불순종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덧붙여져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강한다. 3a절은 불순종의 기간(“요시아 왕 제13년부터 여호야김 제4년까지”)을 첨부하여 백성들의 불순종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한다. 3b절은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불순종의 표현 앞에 ‘끊임없이 말했다’(אָמַרְתֶּם לִּי אֵלַי)라는 대조적 표현을 배치하여 백성들의 불순종을 강조한다.¹² 4a절은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불순종의 표현 앞에 ‘야웨가 모든 그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라는 표현을 배치하여 야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부각한다.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들(אָמַרְתֶּם, אָמַרְתֶּם, אָמַרְתֶּם)이 사용되었다. 7b절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배치하여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였는지를 밝혀준다. 특별히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라는 표현은 우상의 본질과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한다. 8b절은 이 단락의 결론으로 백성들의 불순종을 야웨께서 직접 평가하는 형식을 지닌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예레미야 26-33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25장 1-8절은 26-33장의 도입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불순종의 메시지-보충 설명(렘 26-29장)

예레미야 26-29장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예레미야의 전기와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특별히 성전설교와 거짓 선지자 모티프를 사용해 묘사한다.¹³ 이

12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히필형 부정사 אָמַרְתֶּם 대신 אָמַרְתֶּם이 사용된다. William L. Holladay, *윗글* (1986), 662 참조.

13 김창대는 예레미야 26-29장이 7-10장과 짝을 이루며 이 둘은 거짓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본

단락은 앞부분(렘 1-24장)에 나타나지 않는 날짜 문구(dating formula)를 각 장의 앞에 배치하여 불순종의 시기를 명확히 한다.¹⁴

예레미야 26장은 성전설교 형식으로 백성들의 불순종을 묘사하는데, ‘예레미야의 선포’ + ‘백성들의 반응’ 형식을 취한다.¹⁵ 이 설교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는데(1절), 아마도 요시야의 사후 여호야김 시대에 백성들의 불순종이 본격화되었기에 여호야김 제1년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¹⁶ 특별히 45절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묘사하는데, 불순종의 내용을 2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백성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토라’는 ‘나의 토라’(תּוֹרַתִּי)와 ‘내가 너희에게 준’(לְפָנַיָּהוּאֵלֹהִים)이라는 1인칭 표현을 통해 한정되고, 선지자들은 ‘나의 종’(עַבְדֵּי)과 ‘내가 너희에게 보낸’(שִׁלַּח אֲלֵיכֶם אֶנְכִּי)이라는 1인칭 표현을 통해 한정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이 단순한 법이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웨에게 불순종했음을 부각한다. 게다가 ‘꾸준히 보냈다’(שִׁלַּחְתִּי אֶת־הַנְּבִיאִים)라는 표현을 덧붙여 백성들의 불순종이 오랜 세월 계속되었음을 강조한다.¹⁷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불순종이 강조된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야웨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한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춧거리가 되게 하리라” (6절).

다. 김창대, 「예레미야서의 해석과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283.

14 예외적으로 예레미야 2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 옮긴 후에”라는 날짜 문구를 포함한다.

15 예레미야 26장과 7장의 성전설교의 차이를 위해 차준희,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와 미가전승”, 「구약논단」 1집 (1995년 9월), 226-228 참조.

16 한동구는 이것을 신명기사가의 신학의 반영으로 본다. 한동구, 「예레미야서 해석」 (서울: 퍼플, 2017), 132.

17 김선중은 이로 인해 야웨께서 멜랑콜리아를 느끼게 되었다고 본다. 김선중, “슬픔의 형이상학-예레미야와 멜랑콜리아-”, 「구약논단」 80집 (2021년 6월), 206.

이것은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다양한 계층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8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11절). 이처럼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앞장섰던 사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장서서 순종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야웨의 종을 죽이려고 하였고 백성들은 이들에게 동조하였다. 이것은 불순종의 최악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예레미야 27-29장은 거짓 선지자 모티프를 사용해 불순종의 모습을 언급하는데, 여호야김 제1년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섬김에 대한 논쟁과 기간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서신과 관련하여 백성들의 불순종을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야웨의 명령’ +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 ‘야웨의 명령’의 구조가 사용된다.

첫째로 불순종의 예는 섬김의 논쟁과 관련되어 묘사된다. 이 논쟁은 시드기야를 방문한 이방 사신(렘 27:1-11) 및 시드기야 왕(렘 27:12-15)과 관련되어 묘사되는데, ‘섬김에 대한 야웨의 명령과 심판 예고’ +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구조를 통해 묘사된다. 예레미야 27장 1-11절에서 불순종에 대한 예는 이방 사신들과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섬김에 대한 야웨의 명령과 심판 예고’로 시작된다. 야웨는 이방 사신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밝히며,¹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예고한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7절). “섬기지 아니하며 ... 바벨론의 왕의

18 여기에 언급된 이방 사신들은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은 자들로 보인다. 박동현, 『예레미야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9 참조.

명예를 빼지 아니하면 ...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8절). 섬김의 중요성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강조된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과 심판 예고 이후에 특이하게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가 첨부된다. 야웨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9절). 이러한 경계의 말씀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백성들이 현혹되어 야웨께 불순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암시한다. 예레미야 27장 12-15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불순종에 대한 예가 시드기야 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섬김에 대한 야웨의 명령과 심판’ +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구조가 사용된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12-13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을 덧붙인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14절).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불순종의 죄악을 부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둘째로 불순종의 예는 기간의 논쟁과 관련되어 언급되는데, 제사장 및 백성들과 관련되어 묘사된다(렘 27:16-22). 여기에서는 불순종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 + ‘섬김에 대한 야웨의 명령과 심판’의 형식을 통해 강조된다. 먼저 기간과 관련되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진다. “보라 여호와와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16절). 거짓 선지자들은 짧은 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며, 야웨의 뜻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포한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17절). 예레미야

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는 방법을 명확하게 밝힌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야웨의 말에 순종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살길임을 확실히 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예레미야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불순종과 그의 죽음을 통해 보장된다. 불순종의 최후가 죽음임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불순종을 경고하는 것이다.¹⁹

셋째로 불순종의 예는 서신과 관련되어 언급되는데, 예레미야의 서신(렘 29:1-23) 및 스마야의 서신(렘 29:24-32)과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묘사된다. 이 2개의 서신과 관련된 단락 모두 ‘섬김에 대한 야웨의 명령과 심판’ +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예레미야 서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렘 29:1-23), 예레미야는 그의 서신에서 바벨론에 사는 것을 당연시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야웨의 뜻을 강조한다(47절).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야웨의 말씀을 덧붙인다.²⁰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꾸 꿈도 꾀이 듣고 믿지 말라” (8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포로지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불순종을 주도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²¹ 이것은 고국뿐만 아니라 포로지에서까지 불순종이 만연했음을 암시한다. 특별히 21-23절은 이러한 불순종을 막기 위해 야웨께서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에게 넘겨 죽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본토뿐만 아니라 포로지에서까지 거짓 선지자를 통한 불순종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불순종의 확대를 경계하는 것이다.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제사

19 조휘, 「예레미야와 함께」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9), 531.

20 김한성은 예레미야 29장 8-9절은 다른 구절들(렘 14:14; 23:32)과 비교할 때 “백성들에게 능동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수를 허용치 말고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김한성, “예레미야서의 거짓 예언자 규정과 그 의도”, 「신학논단」 60집 (2010년), 22.

21 John A. Thompson, *The Book of Jeremi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547.

장 스바냐에게 보낸 서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렘 29:24-32). 이 서신은 불순종의 모습을 ‘섬김에 대한 논쟁’ +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와 심판’의 구조로 설명한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선포한 예레미야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며 예레미야를 책망해야 한다고 제사장 스바냐에게 서신을 보낸다.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27절). 이 말을 들은 야웨는 오히려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이며 그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31-32절). 여기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운명을 강조함으로써 백성들의 불순종을 경계한다.

이처럼 예레미야 26-29장은 거짓 선지자 모티프를 사용해 이스라엘과 포로지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불순종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의 메시지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가올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야웨의 심판이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인해 야웨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심판의 이유를 예레미야 1-24장이 우상숭배(렘 2:28; 11:13)와 윤리적이며 도덕적 죄악(렘 7:5-6), 강대국 의지(렘 2:36-37)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면,²² 예레미야 25-44장은 불순종의 주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실례가 예레미야 26-29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3) 불순종의 논쟁 속에 언급된 회복 메시지-결말(렘 30-33장)

예레미야 25장에서 불순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예레미야 26-29장

22 김래용, “예레미야 1-25장에 나타난 우상숭배”, 『선교와 신학』 42집 (2017년 여름), 101-129.

에서 불순종의 심각성을 거짓 선지자 모티프를 사용해 묘사한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30-33장에서 불순종한 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회복을 언급한다.²³ 예레미야 26-29장에서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야웨께서 그의 진노를 돌이킬 것이라고 선포하였고(렘 26:3, 13), 거짓 선지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기간과 관련하여 회복을 예언하였고(렘 27:20-22; 28:6),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복된 일을 말하였으며(렘 29:32), 그리고 70년을 섬긴 이후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였다(렘 29:10-14). 따라서 예레미야 30-33장은 26-29장에서 언급된 회복에 관한 말씀의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30-33장은 예레미야서 후반부(26-52장, 특히 26-29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예레미야 26-29장에 간략하게 언급된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30-33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이런 점에서 후자는 전자에 대한 보장이 라고 할 수 있다. 보장의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귀환과 관련된 메시지이다. 예레미야 26-29장은 귀환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언급한다(렘 28:4, 6; 29:10, 14).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 이러한 언급은 예레미야 30-3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특별히 귀환에 관한 내용이 이 단락의 처음과 끝에 배치되어 인클루시오 구조를 형성하며(렘 30:3; 33:26), 또한 이 단락의 중간에 배치되어 회복에 관한 내용의 도입 역할을 한다(렘 30:3, 18; 31:8, 23; 32:37; 33:7, 26). 게다가 이 단락은 귀환에 관한 세부적인

23 룬드봄(Jack R. Lundbom)은 예레미야 30-33장이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데, 초기에는 30-31장으로 구성되었다가 이후에 확대되었으며, ‘위로의 책’이 현재의 위치에 배치된 이유는 예레미야 29장의 ‘예레미야의 서신’에 암시된 희망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Jack R. Lundbom, *룻글*, 97 참조.

24 Douglas R. Jones, *룻글*, 370-371; 조휘, *룻글*, 566.

내용을 묘사한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렘 30:3).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렘 33:26). 귀환의 대상(‘이스라엘과 유다’), 귀환의 장소(‘내가 조상에게 준 땅’), 귀환의 결과(‘땅을 차지함’, ‘불쌍히 여김’)를 자세하게 언급한다.

둘째는 귀환 이후에 있을 회복에 관한 메시지이다. 예레미야 26-29장에서 회복의 내용은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렘 27:22).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렘 29:32). 여기에서 야웨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복된 일’을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예레미야 30-33장은 야웨께서 약속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술한다.²⁵ “다시는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야웨와 다윗을 섬길 것이다”(렘 30:8-9, 21). ‘성읍이 재건되고 번성할 것이다’(렘 30:18, 19).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렘 30:19). ‘야웨와 백성들이 새 언약을 맺고, 야웨는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야웨의 백성이 될 것이다’(렘 31:31-34). ‘야웨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렘 33:6). 백성들과 관련된 모든 면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30-33장은 26-29장의 결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5 클레멘츠(Ronald E. Clements)는 ‘이러한 희망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정확한 말들과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에 주어진 예레미야의 중심적인 신념으로부터 기인한 희망의 메시지를 개괄한 문학적 유산’이라고 본다. Ronald E. Clements, *Jeremia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176.

2) 예레미야 25장 9-10절과 34-39장: 불순종과 심판

예레미야 34-39장은 불순종의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이 메시지도 3단계로 전개된다. 예레미야 25장 9-10절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언급하고(1단계), 예레미야 34-38장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2단계), 예레미야 39장은 불순종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이 실행되었음을 언급한다(3단계). 이런 점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메시지는 3단계 구성을 통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서는 특별히 1인칭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심판의 주체가 야웨임을 부각한다. 이 단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메시지-도입(렘 25:9-10)

예레미야 34-39장은 불순종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예레미야 25장 9-10절에 간략하게 소개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레미야 25장 1-11절이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렘 1-24장)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렘 26-44장)를 위한 도입 역할을 한다면,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9-10절은 내용적으로 예레미야 34-39장을 위한 도입 역할은 한다. 예레미야 25장 9-10절을 살펴보면 이 구절들은 불순종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을 간략하게 묘사하는데, 심판의 도구와 심판의 내용을 소개한다. 심판의 도구로 ‘북쪽의 모든 종족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묘사되는데(9a절), 특별히 1인칭 표현 ‘보라 내가 보냈다’(וַיִּשְׁלַח אֲנִי), ‘내가 취하였다’(וַיִּשְׁכַּרְתִּי), ‘나의 종(עַבְדִּי)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여 심판의 주체가 야웨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심판의 내용으로는 2가지가 언급된다. 첫째는 심판의 대상과 경계를 다룬다. 심판의 대상과 경계로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가 언급된다(9a절). 야웨께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 특정한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야웨께

서 이들을 도구로 삼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데려왔다’(אֲנִי הֵבֵיתִי)라는 1인칭 히필형 동사가 사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판의 주체가 야웨임을 강조한다. 둘째는 심판의 정도와 결과를 다룬다. 9b절은 야웨의 심판으로 인해 ‘백성들이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땅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10절은 ‘백성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땃들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내적으로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외적으로는 일상적인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1인칭 동사 ‘내가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אֲנִי מְאַבְדֵם), ‘내가 그들을 놓을 것이다’(אֲנִי מְשַׁלְּמֵם), ‘내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אֲנִי מְקַטְּעֵם)를 사용해 심판의 주체가 야웨임을 강조한다. 이제 예레미야 34-38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2)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메시지-보충 설명(렘 34-38장)

예레미야 34-38장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단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라는 표제로 시작하고(렘 34:1),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는 표현으로 끝난다(렘 38:28). 그리고 이 단락의 중간에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관한 표현들이 배치되어 있다(렘 34:2, 7, 17-22; 35:17; 36:30-31; 38:22-23). 이처럼 앞의 단락(렘 26-29장)과는 달리 심판에 관한 언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위해 ‘불순종의 모습’ +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구조가 사용된다. 각각의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레미야 34장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히브리 노예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불순종의 모습’(8-17a절)+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17b-22절)의 구조로 묘사한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

렘 백성들의 언약 파기를 예로 든다(8-16절).²⁶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히브리 남녀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풀어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왔다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17a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לֹא-שָׁמַעְתֶּם אֵלַי)라는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백성들이 야웨와 맺은 언약을 철저히 파기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부터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4절). 백성들의 불순종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그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불순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 이들의 불순종은 야웨의 심판으로 이어진다(17b-22절). 2가지가 강조되는데, 하나는 모든 계층에 대한 심판이며(17b-21절), 다른 하나는 성과 성읍에 대한 심판이다(22절). 심판의 대상으로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땅의 백성들,²⁷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이 언급되고, 심판의 도구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바벨론 왕의 군대가 언급된다.²⁸ 이처럼 심판의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이 언급되고, 심판의 도구로 다양한 것들이 사용된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 불순종의 최악이 모든 계층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불순종한 백성들이 야웨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웨는 1인칭 표현으로 묘사된다. ‘보라 내가 너희로 인해 자유를 선포하리라’(וְהִנְנִי קֹרֵא לְכֶם חֵירוּת, 17ba절). ‘내가 너희를 흠어지게 하리

26 김창대는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이 언약 파기의 2가지 실례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김창대, 윗글, 364-365.

27 ‘땅의 백성들’(עַם הָאָרֶץ)은 “상당한 분량의 땅을 소유하면서 지역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 유지들을 가리키므로 민간 지도자를 대표한다.” 박동현, 윗글, 258.

28 김유기, “예레미야 34장 17절의 חֵירוּת(드르르)의 의미”, 『구약논단』 84집 (2022년 6월), 82-83 참조.

라' (נָתַתִּי אֹתָם לְזוּעָה, 17b3절). '내가 그들을 넘기리라' (נָתַתִּי אֹתָם, 20aa절), '내가 넘기리라' (אָתָּן, 21aa절). '내가 그들을 오게 하리라' (הַשְּׁבִתִּים, 22aa절), '내가 황폐하게 하리라' (אָתָּן שְׁמָמָה, 22b절). 이러한 1인칭 표현들은 심판의 주관자가 야웨임을 보여준다.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35장은 백성들의 일반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레갑 사람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²⁹ 여기에서도 '불순종의 모습'(1-16절)+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17절)의 구조가 발견되는데, 특별히 비교법이 사용되어 불순종의 모습을 강조한다.³⁰ 야웨는 예레미야를 시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은 야웨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큰 비교가 되었다. 14절은 비교법을 사용해 백성들의 불순종을 부각한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사람들과의 비교와 더불어 특별히 '오늘까지'(עַד-הַיּוֹם הַזֶּה)와 '끊임없이 말하다'(וְדַבַּרְתִּי אֲשֶׁרְכֶם)라는 표현을 사용해 백성들의 불순종이 지속되었음을 부각한다. 이제 이들의 불순종은 야웨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 보라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17절). 특별히 לָכֵן(라켄/그러므로)과 יָעַן(야안/왜냐하면)을 사용해 백성들의 불순종이 야웨의 심판의 결과임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서도 1인칭 표현 '보라 내가 가져오다'(מְבִיא)와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כָּל-הָרָעָה אֲשֶׁר דִּבַּרְתִּי)'을 사용해 심판의 주관자가 야웨임을 강조한다.

29 Ernest W. Nicholson, *윗글*(1975), 99.

30 Walter Brueggemann, *윗글*(1991), 114.

예레미야 36장은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다루는데, 특별히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여기에서도 ‘불순종의 모습’(20-26절)+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27-32절)의 구조가 발견된다. 두루마리는 야웨의 지속적인 명령을 상징하는데,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야웨께서 기록하도록 한 모든 말씀’으로 묘사된다(2절).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성전에서 낭독된 야웨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커녕 오히려 두루마리를 한 장씩 찢어 불에 태웠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23절). 이것은 당시 통치자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³¹ 여호야김 왕은 신하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를 모두 불살랐으며, 심지어 두루마리를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다.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하였으나”(25-26절). 이 사건은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그의 불순종은 야웨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심판의 내용으로 2가지가 언급된다. 하나는 여호야김 왕과 그의 후손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30절). 다른 하나는 여호야김 왕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31절). 여기에서도 1인칭 표현이 사용되어 심판의 주관자가 야웨임을 명확히 한다.

예레미야 37-38장은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다루는데, 예레미야의 고난과 관련하여 설명한다.³² 이것을 위해 ‘불순종의 모습’ + ‘불순종으로

31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찢어 불태운 사건은 율법 책이 낭독되었을 때 요시아가 옷을 찢은 사건과 비교된다(왕하 22:11-20). John A. Thompson, *윗글*, 627.

32 룬드봄은 예레미야 37-44장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난을 묘사하는 소위 ‘via dolorosa’ 산문이라고

인한 심판'의 구조가 활용된다. 이 단락은 특이하게도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는 불순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렘 37:2). 시드기야 왕 당시에 불순종이 만연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은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대화들 통해 묘사된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요청한다(렘 37:3).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야웨께 요청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야웨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78절). 야웨는 이들에게 도움을 말씀은커녕 저주의 말씀을 주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며, 형식적으로 야웨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³³ 특별히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와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것 외에도 그의 불순종의 모습은 예레미야의 권고를 통해 잘 드러난다(렘 38:14-28 참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내가 왕에게 아뢰면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행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20-21절). 순종에 대한 계속적인 권고에도 시드기야 왕이 불순종으로 일관하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제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은 야웨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3가지가 제시된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렘 38:23a).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포로로 끌려

본다. Jack R. Lundbom, *읽글*, 96.

33 조휘, *읽글*, 714-715; 김창대, *읽글*, 382-383.

가게 될 것이다(렘 38:22). 성읍이 불에 타고 폐허가 될 것이다(렘 38:23b).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통해 불순종을 경계하는 것이다.

(3)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메시지-결말(렘 39장; 참조 렘 52장; 왕하 25장)

예레미야 39장은 앞에서 언급된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³⁴ 특별히 3가지가 묘사된다. 첫째는 포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34-38장은 불순종으로 인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언급하였다(렘 34:17, 21; 38:22 참조).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렘 34:17).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렘 34:21). 이러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예레미야 39장은 보여준다. 특별히 9절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라고 말한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 제11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일어난 실제적 사건에 대한 묘사이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34-38장은 불순종으로 인해 성읍이 파괴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렘 34:22; 37:8; 38:23 참조).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렘 34:22).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렘 37:8). 불순종으로 인해 성읍이 함락되어 파괴되고 불살라질 것을 경고하였는데, 예레미야 39장은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³⁵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34 Christopher R. Seitz, *Theology in Conflict: Redactions to the Exile in the Book of Jeremiah* (Berlin: Walter de Gruyter, 1989), 269-273; Walter Brueggemann, *읽글*(1991), 154-155; 조휘, *읽글*, 739 참조.

35 캐럴(Robert P. Carroll)은 예레미야 39장 1-14절이 예레미야 37장 1절-40장 6절과 내용적 조화를 이루지는 않지만, 이 본문들은 중심 주제를 공유한다고 본다. Robert P. Carroll, *읽글*, 693.

성벽을 헐었고”(8절).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하 25장은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34-38장은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 경고하였다. “시드기야 왕이 ...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렘 37:17).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렘 38:23). 예레미야 39장 4-7절은 이러한 경고가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이 도망하였고,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붙잡아 바벨론의 왕에게 넘겼고,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며 그의 아들들은 살해되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39장은 예레미야 25장의 심판에 대한 암시와 예레미야 34-38장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결론 역할을 한다.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메시지가 3단계 구성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3) 예레미야 25장 11절과 40-44장: 불순종과 섬김

예레미야 40-44장은 불순종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섬김의 모티프를 사용해 강조한다.³⁶ 여기에서도 3단계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섬김의 기간을 간략하게 언급하고(1단계), 예레미야 40장 1절-43장 7절은 섬김에 대한 명령이 예루살렘 함락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거부되었는지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2단계), 예레미야 43장 8절-44장 30절은 섬김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언급한다

36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섬김의 주제를 위해 김래용,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와 아바드”, 『신학논단』 89집 (2017년 9월), 77-106 참조.

(3단계). 이런 점에서 섬김과 관련된 불순종의 메시지도 3단계 구성을 통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1) 섬김과 관련된 불순종의 메시지-도입(렘 25:1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25장 1-11절은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렘 1-24장)를 마무리하는 느낌을 준다. 특별히 3절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십삼 년 동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표현은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아주 적절하다.³⁷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1-11절은 예레미야 26-44장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 3-8절은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다루는 예레미야 26-29장/30-33장과 유사하고, 9-10절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다루는 예레미야 34-38/39장과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11절은 섬김과 관련하여 백성들의 불순종을 다루는 예레미야 40장 1절-43장 7절/43장 8절-44장 30절과 유사하다. 그리하여 내용적으로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예레미야 40-44장을 위한 도입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이 모든 땅이 궤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말한다.³⁸ 이러한 섬김에 관한 메시지는 예레미야 1-24장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관련되어 강조되었고(렘 5:19; 8:2; 11:10; 13:10; 16:11; 22:9) 예레미야 26-44장에서는 바벨론의 섬김과 관련되어 강조되었다(렘 27:6-11, 12-14, 17; 28:14; 29:4-7; 38:2, 17-18).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 아웨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

37 김래용, *읽글*(2020), 38-40.

38 70년에 대한 논의를 위해 C. F. Whitley, “The Term Seventy Years Captivity”, *Vetus Testamentum* 4 (1954), 60-72; A. Orr, “The Seventy Years of Babylon”, *Vetus Testamentum* 6 (1956), 304-306; John A. Thompson, *읽글*, 513-514 참조.

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40-44장에 언급된 예루살렘 함락 후의 백성들은 당연히 바벨론을 섬겨야 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25장 11절은 예레미야 40-44장의 섬김에 대한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2) 섬김과 관련된 불순종의 메시지-보충 설명(렘 40:1-43:7)

예레미야 40장 1절-43장 7절은 불순종의 메시지를 이어나간다.³⁹ 이 단락을 시작하는 40장 1-3절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의 함락이 불순종 때문임을 강조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2-3절). 그런데 백성들의 불순종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특별히 예루살렘 함락 이후 불순종의 모습은 섬김의 모티프를 통해 묘사된다.

예레미야 40장 1절-43장 7절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발생한 불순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특별히 2개의 그룹의 불순종을 다룬다. 첫째는 이스마엘 그룹의 불순종의 모습이다.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그다라를 살해하였다.⁴⁰ 그다라는 바벨론의 왕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으로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렘 40:9). 이에 분노한 이스마엘은

39 니콜슨(Ernest W. Nicholson)은 예레미야 40장 7절-44장 30절을 2개의 단락(렘 40:7-43:7; 43:8-44:30)으로 나누는데, 전자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유다에 남으라’는 야웨의 명령에 대한 공동체의 거절(렘 41:16-43:7)에서 절정에 다다르고, 후자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더욱 암울하게 묘사함으로써 불순종의 죄악을 강화한다고 본다. Ernest W. Nicholson, *위글*(1975), 132.

40 ‘암몬 왕 바알리스’에 대한 논의를 위해 John Bright, *Jeremiah*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65), 253 참조.

10명의 동료와 함께 그다라를 살해하고, 그다라와 함께 미스바에 남아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피신하려고 하였다(렘 41:10). 이것은 야웨에 대한 불순종이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야웨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인 것이다. 게다가 이스마엘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던 순례자들을 중간에서 만나 살해하였다. 야웨를 섬기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쪽 지역에서 오던 자들을 살해한 것이다.⁴¹ 이러한 이스마엘의 행위는 당시 정치적 세력의 불순종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둘째는 유다에 남은 자들의 불순종의 모습이다. 이들은 ‘바벨론의 위협으로 들에 피신한 가레아 그룹’(렘 40:7-8), ‘바벨론의 위협으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지역으로 피신한 그룹’(렘 40:11-12), ‘그다라에게 위임되어 미스바에 남겨진 그룹’(렘 41:10)으로 그다라가 총독이 되자 미스바에 모여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그다라가 이스마엘에게 살해되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야웨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이다. 이들의 행위는 문답 형식을 통해 잘 드러난다. 먼저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야웨의 뜻을 묻는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렘 42:3-6). 이들은 야웨의 답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다짐한다. 10일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는 야웨의 답변을 전달한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 그러나 만일 너희가 ...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한다면 ...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

41 톰슨(John A. Thompson)은 ‘순례자들이 북쪽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적어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얼마의 사람들이 주전 622년의 요시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말씀을 지켰음을 의미하며, 여기에 언급된 순례자들은 이들 중의 일부’라고 본다. John A. Thompson, *룻글*, 659.

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렘 42:10-17).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고 유다에 남아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다짐을 어기고 야웨의 말씀을 거절하였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렘 42:21).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렘 43:4).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렘 43:7).

이처럼 예레미야 40장 1절-43장 7절은 함락 이후에도 불순종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섬김의 모티프를 사용하여 정치적인 세력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묘사한다. 함락 이전에는 우상의 섬김과 관련하여 불순종의 모습이 강조되었다면, 함락 이후에는 바벨론의 섬김과 관련하여 불순종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3) 섬김과 관련된 불순종의 메시지-결말(렘 43:8-44:30)

예레미야 25장 11절은 70년의 섬김을 언급하고, 예레미야 40장 1절-43장 7절은 섬김의 명령을 어긴 백성들의 불순종을 언급하였는데, 이제 예레미야 43장 8절-44장 30절은 섬김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언급한다.⁴² 이것은 ‘심판의 이유’ + ‘심판의 내용’ 형식으로 전개된다. 특별히 ‘심판의 이유’로 섬김과 관련된 2가지가 제시된다.⁴³

첫째는 심판의 이유로 바벨론을 섬기지 않은 불순종의 행위가 제시된다.⁴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렘 44:12). 야웨는 애굽 땅으로 피신한 자들을 처단하

42 Ernest W. Nicholson, *유태*(1975), 132.

43 톰슨은 심판의 이유로 ‘애굽으로의 피신’과 ‘우상숭배’를 제시한다. John A. Thompson, *유태*, 677.

44 윌슨, 677.

졌다고 말한다. 바벨론의 군대가 두려워 애굽으로 피신하였지만,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렘 25:11)는 야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의 불순종은 야웨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렘 44:13-14). 철저한 심판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이 모두 죽게 되며 다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섬김과 관련된 야웨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철저한 심판으로 귀결된다.

둘째는 심판의 이유로 야웨를 섬기지 않은 불순종의 행위가 제시된다.⁴⁵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렘 44:8). 이들은 야웨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이다. 그런데 애굽에 피신해서까지도 야웨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풍성하게 먹고 마셨지만, 야웨를 섬김으로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억지를 부렸다. 결국 이들의 불순종은 야웨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렘 44:26-27). 여기에서도 야웨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철저한 심판으로 귀결된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 43장 8절-44장 30절은 예레미야 25장의 섬김에 대한 암시와 예레미야 40장 1절-43장 7절의 섬김에 대한 불순종을 심판으로 마

45 캐럴(Robert P. Carroll)은 신명기사가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예레미야 44장에 지배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Robert P. Carroll, *유태*, 732.

무리 짓는 결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예레미야 26-44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이전과 이후 백성들의 삶을 예레미야의 전기와 관련하여 묘사하는데, 이 단락의 내면에 흐르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불순종이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26-44장은 26-29장, 30-33장, 34-36장, 37-39장, 40-44장으로 분리되곤 한다. 그런데 불순종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볼 때 이 단락은 하나로 묶일 수 있으며, 이 단락의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3개의 모티프가 연결되고 있다. 예레미야 26-33장은 거짓 선지자 모티프를 사용해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회복을 묘사하고, 예레미야 34-39장은 심판 모티프를 사용해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다양한 심판과 예루살렘 함락을 묘사하고, 예레미야 40-44장은 섬김 모티프를 사용해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정치적인 세력의 불순종의 모습과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의 최후를 묘사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레미야 25장 1-11절은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렘 1-24장)를 마무리하는 역할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예레미야 26-44장의 도입 역할도 한다. 특별히 1-8절의 불순종에 관한 요약은 예레미야 26-33장의 내용과 관련되고, 9-10절의 심판에 관한 요약은 예레미야 34-39장의 내용과 관련되며, 11절의 섬김에 관한 요약은 예레미야 40-44장의 내용과 관련된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25장 1-11절과 26-44장을 연결하며 보면, 불순종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25장 1-8절, 26-29장, 30-33장에서 3단계 구성으로 전개되고,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25장 9-10절, 34-38장, 39장에서 3단계 구성으로 전개되며, 섬김과 관련된 불순종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25장

11절, 40장 1절-43장 7절, 43장 8절-44장 30절에서 3단계 구성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레미야 25-44장은 불순종의 메시지를 3단계 구성으로 전개했고, 이것을 통해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야웨의 주권(‘심판의 주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 김래용, “예레미야 1-25장에 나타난 우상숭배”, 『선교와 신학』 42집 (2017년 여름), 101-129.
- _____,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와 아바드”, 『신학논단』 89집 (2017년 9월), 77-106.
- _____, “예레미야 1-25장의 메시지와 고이의 역할”, 『신학사상』 189집 (2020년 여름), 15-45.
- 김선중, “슬픔의 형이상학-예레미야와 멜랑콜리아”, 『구약논단』 80집 (2021년 6월), 198-223.
- 김유기, “예레미야 34장 17절의 דָּרֹכַר (드로르)의 의미”, 『구약논단』 84집 (2022년 6월), 77-104.
- 김창대, 『예레미야서의 해석과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 김한성, “예레미야서의 거짓 예언자 규정과 그 의도”, 『신학논단』 60집 (2010년), 7-36.
- 박동현, 『예레미야 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이유미, “예레미야서와 전기장르: 렘 26-45장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27집 (2010년), 199-226.
- 조휘, 『예레미야와 함께』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9).
- 차준희,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와 미가전승”, 『구약논단』 1집 (1995년 9월), 205-232.
- 한동구, 『예레미야서 해석』 (서울: 퍼플, 2017).
- Aejmelaeus, Anneli, “Jeremiah at the Turning-point of History: The Function of

- Jere. XXV 1-14 in the Book of Jeremiah” , *Vetus Testamentum* 52 (2002), 459-482.
- Bright, John, *Jeremiah*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65).
- Brueggemann, Walter, *To Pluck Up, To Tear Down: A Commentary on Jeremiah 1-25*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 _____, *To build, To Plant: A Commentary on Jeremiah 26-5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 Carroll, Robert P., *Jeremia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Clements, Ronald E., *Jeremiah*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Craigie, Peter C., Page H. Kelley, and Joel F. Drinkard, Jr., *Jeremiah 1-25* (Dallas: Word Books, 1991).
- Fischer, Georg, *Jeremia 1-25* (Freiburg: Herder Verlag, 2005).
- _____, *Jeremia 26-52* (Freiburg: Herder Verlag, 2005).
- Goldingay, John, *The Book of Jeremi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21).
- Hobbs, T. R., “Some Remarks on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Book of Jeremiah” ,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4 (1972), 257-275.
- Holladay, William L., *Jeremiah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_____, *Jeremiah 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Jones, Douglas R., *Jeremi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1992).
- Keown, Gerald L., Pamela J. Scalise, and Thomas G. Smothers, *Jeremiah 26-52*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 1998).
- Kessler, Martin, “Jeremiah Characters 26-45 Reconsidered” ,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27 (1968), 81-88.
- Leuchter, Mark, *The Polemics of Exile in Jeremiah 26-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Lundbom, Jack R., *Jeremiah 1-2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McKane, William, *Jeremiah I* (Edinburgh: T. & T. Clark, 1986).

- _____, *Jeremiah 2* (Edinburgh: T. & T. Clark, 1996).
- Nicholson, Ernest W., *Jeremiah 1-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_____, *Jeremiah 26-5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Orr, A., “The Seventy Years of Babylon” , *Vetus Testamentum* 6 (1956), 304-306.
- Rofé, Alexander, “The Arrangement of the Book of Jeremiah” ,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1 (1989), 390-398.
- Seitz, Christopher R., *Theology in Conflict: Redactions to the Exile in the Book of Jeremiah* (Berlin: Walter de Gruyter, 1989).
- Thompson, John A., *The Book of Jeremi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 Whitley, C. F., “The Term Seventy Years Captivity” , *Vetus Testamentum* 4 (1954), 60-72.

검색어

예레미야 26-44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30-33장

불순종

거짓 선지자

Messages of Jeremiah 25-44: Focusing on the Three-step Construction

Rae-Yong Kim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at Jeremiah 25-44 can be tied up as a unit through the message of disobedience, and the message of this disobedience is developed in three stages. For this, we examine Jeremiah 25:1-11 and Jeremiah 26-44, as the texts were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and subsequently expound the contents, structures, expressions, and language of each paragraph.

First, Jeremiah 25:1-8 depicts the people's disobedience, similar to Jeremiah 26-33. However, this disobedience is replenished in Jeremiah 26-29 through false prophet motif, and in Jeremiah 30-33 the restoration emphasized in the

www.kci.go.kr

debate of false prophets is mentioned in detail. In this regard, the theme of disobedience is developed in three stages. Second, Jeremiah 25:9-10 mentions judgment from disobedience, similar to Jeremiah 34-39. However, the judgment due to this disobedience is supplemented with the judgment motif in Jeremiah 34-38, and Jeremiah 39 mentions that a warning of this judgment has been fulfilled. Third, Jeremiah 25:11 mentions disobedience through service, similar to Jeremiah 40-44. However, the disobedience through the service is supplemented through the service motif in Jeremiah 40:1-43:7, and Jeremiah 43:8-44:30 deals with the judgment of those who ran to Egypt after breaking the order of service. In this sense, Jeremiah 25:1-11 and Jeremiah 26-44 developed the theme of disobedience in three stages. Insofar as this paragraph deals with the fall and subsequent periods of Jerusalem, the message of disobedience plays a role in highlighting the legitimacy of YHWH's judgment, while the message about the judgment caused by disobedience plays a role in highlighting YHWH's sovereignty.

The analysis that Jeremiah 25-44 is tied through the theme of disobedience provides an evidence that this theme weaved these chapters into a single unit. And this analysis reveals that Jeremiah 30-33 is not a text that interferes with the flow of Jeremiah 25-44, but rather an indispensable text for the subject of disobedience.

Keywords

Jeremiah 26-44

Jeremiah 25

Jeremiah 30-33

disobedience

false prophets

- 투고일: 2022년 7월 04일
- 심사일: 2022년 7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11일

www.kci.go.kr